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⑨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4)- 방장(方丈)

유마거사 작은 방에서 유래

방장은 총림 곧 선종사원의 최고 어른이다. 그러나 본래 방장은 직함이나 주지의 거실·침실 이름이었다. 당우 이름이 직함으로 발전한 이례적인 경우다. 송초 자각종색 선사(1057~1134)가 편찬한 <선원정규(1128) 대 동양덕회 선사(1128)가 편찬한 <적수백장정규(1128) 등에 '방장'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있지만, 주로 당우 이름으로 나오고 있을 뿐 직함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선원의 중요한 12개 소임인 유나(維那)·수좌(首座)·지객 등 6지사(知事)와 6두수(頭首)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을 두어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방장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방장'은 직함이 아니고 주지의 거실 이름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장을 직함으로 쓰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여기서는 당우의 역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직함에 대해서는 '주지(住持)' 항목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방장(方丈)'이라는 말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유마경>에서 비롯된 말이다. <유마경>은 반야 공사상을 실현적으로 전개한 경전으로서 사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금강경>보다도 훨씬 더 선불교에 영향을 준 경전이다. 이 경전의 주인공인 유마거사의 방이 '사방 일장(四方一丈)'이었다는 데서 따온 말이 곧 '방장(方丈)'이다. 사방 1장이라면 약 3.3m²로서 1평 정도에 불과하지만 유마거사는 이 작은 방에 3만 2000명이 있을 수 있는 좌석을 마련했다. 그것은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말과도 같은 말로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불교는 유훈론이 아닌 유심론이다. 진리란 불가사의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종사찰이라고 해도 별도로 방장 당우가 없고 또 편액을 '방장'이라고 붙인 곳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총림 격에 가까운 중국·일본의 선종사원은 예나 지금이나 별도로 방장 건물이 있고, 그 당우에는 반드시 '방장(方丈)'이라는 편액을 써서 붙인다.

일본 교토(京都) 5산으로서 입제종 대본산인 덴류지(天龍寺)나 겐닌지(健仁寺) 등에는 현재도 옛 방장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규모가 조계사 대웅전의 약 1.5배나 된다. 방장 앞에는 일본 사찰 특유의 '카레산스이(枯山水, 마른 산수)'라고 하여, 돌과 모래로 산수(山水)를 표현한 석정(石庭)이 있고, 뒤에는 자연을 축소시킨 연못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모두 마음을 밝히는 조연적(助演的)인 역할을 한다. 깨달았을 때 이와 같은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돈·출세 따위의 세속사는 잠시지만 나라 이야기가 된다. 이런 곳에서는 좌선 자체가 그대로 선의 세계였을 것이니 어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본 선종 선종사원의 거대한 방장과 앞뒤로 펼쳐져 있는 석정(石庭), 그리고 세월이 깎여 있는 고풍스러운 당우와 정갈함 등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처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료안지(龍安寺)의 카레산스이 석정은 아주 유명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덴류지(天龍寺)의 방장과 고야산 고곤부지(金剛峰寺)의 석정(石庭)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하다.

지난 해 가을 교토에 있는 10여 개의 선종사원을 답사하면서 처음 처음 방장에 붙어 있는 '方丈'이라는 편액을 보고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방장화상의



방장은 선종사원의 중심을 이루는 당우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방장은 많지 않는데, 쌍계사 금당 좌우의 전각에 '동방장' '서방장'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사진은 동방장.

사방 1장에 3만2천 대중이 운집하다 <丈>

과 방장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대혜선사가 주지로 있던 경산사는 처음으로 중각법당(重閣, 2층)을 지어 서 아래층은 법당으로 위층은 전방장으로 사용했는데, '능소지각(凌霄之閣)'이라는 편액을 붙였다. '능소지각'이라는 말은 '능소지(凌霄之志)'에서 따온 말로서 '운비하다' '날아오르다'는 뜻이다. 아마도 중생에서 부처로 웅비한다는 뜻일 것이다. 나무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능소화(凌霄花)도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전방장의 규모는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서 불전이나 법당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방장보다 더 큰 때가 많은데, 이곳은 주로 외빈을 만나는 접견실 겸 소참법문을 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그 밖에도 선원의 소임자들과 불사(佛事)를 논의하는 회의실, 수행승들을 지도, 편달하는 독참·입실 등의 장소로 사용한다. 그리고 방장 본체는 '내방장(內方丈)' 혹은 '소(小)방장'이라고 하여 주지의 개인 침실로 사용하는 데 전방장에 비하면 크지는 않다. 내방장을 침당(寢堂)·정당(正堂)·정침(正寢) 또는 '당두(堂頭)'라고도 한다. 주지를 '당두화상(堂頭和尚)'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방장의 당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주지(住持)의 역할이 크음을 의미하고, 작다는 것은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소참법문과 독참(獨參)·입실(入室) 등 지도, 제접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방장 건물은 규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송대의 한림학사 양역(楊億, 974~1020)은 <선문규식(禪門規式)>에서 "방장은 개인적인 침실이 아니라, 참선자들을 위하여 설법, 강의하는 공적인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백장선사도 "방장은 개인 방이 아닌 법을 통하여 수행자를 교육시키는 장소"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 유마거사의 방도 사실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불이(不二)의 법문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이었다.

방장은 매우 중요한 당우이다. 선종사원이 수해나 병화(兵火)로 인하여 소진(消盡)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세우는 당우가 법당과 방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처를 만드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 두 당우가 가장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수행승들이 정법안장을 갖추자면 반드시 법문을 들어야 하고 법문을 듣자면 설법주(說法主, 주지)의 안위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공양은 전각에서 임시로 하고, 좌선은 나무 밑에 앉아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장 당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은 하동 쌍계사이다. 쌍계사 금당 좌우편에는 '동방장(東方丈)' '서방장(西方丈)'이라는 편액을 붙인 3칸 짜리의 작은 당우가 있는데, 이 용도가 무엇이고 여기에는 누가 기거하며 또 이것이 전방장과 같은 방장 당우의 하나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 수 없지만, 현재는 선방으로 사용하는데 10여 명 정도가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우의 명칭이나 규모로 보아 선방은 아니고 서방장은 서당(西堂)과 같은 개념으로서 전인 주지가 기거했고, 동방장은 동당(東堂)과 같은 개념으로서 현임 주지가 기거하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통 선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편액을 붙인 당우가 남아 있다는 것이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흥성했던 우리 선불교의 자취를 보는 것 같아 더욱 감회가 깊다.

방장실에는 방장을 보좌하는 사자(侍者)가 다섯 명이나 팔려 있다. 이것을 '방장사자(侍者)', '방장행자(行者)'라고 하는데, '사자'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秘書)로서 최측근 인물이다. 방장화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며, 특혜라면 그 누구보다도 많은 법문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시향사자(侍香侍者): '효향(燒香)사자'라고도 하는데, 방장의 상단법어와 소참법문·보설(普說)·염(拈)과 송(頌) 등을 기록하며, 대중과의 면담, 방장의 향화(香火)와 의례(儀禮) 등을 담당, 보좌하는

사자이다. ○ 시장사자(侍狀): '서장(書狀)사자'라고도 하는데, 방장화상이 외부 인사들과 주고받는 서간문 기초 및 관리, 그리고 총림의 모든 문건 작성 등을 담당한다.

○ 시객사자(侍客): '청객(請客)사자'라고도 하는데, 방장화상을 찾아오는 빈객 응접 및 접대 등을 담당하는 사자이다.

○ 시약사자(侍藥): '방약(湯藥)사자'라고도 하는데, 방장의 공양과 차, 약약 등을 담당하는 사자이다.

○ 시의사자(侍衣): '의발(衣鉢)사자'라고도 하는데 방장의 옷과 가사와 발우 등을 담당하는 사자이다.

방장사자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심성이 굳고 입이 무거울 것'이다. 5명의 방장사자는 항상 방장실 곁에 있는 사자寮(侍者寮)에서 생활한다. 방장화상이 움직이면 사자들은 모두 앞뒤를 따른다. 이 가운데 시향사자가 비서실장인 셈이다. 시향사자는 방장의 법어를 필기해 두어야 하므로 문헌(文獻)에 능해야 하고 또 실력도 있어야 한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불이법문으로 진리 깨닫게하는 선종사원의 중심

쌍계사 '동방장·서방장' 편액 붙인 당우 남아있어

방장실은 주지의 거실로서 법당 바로 뒤에 위치한다. 7당 가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참선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인 역할에서 본다면 법당과 승당에 이어 3번째쯤 된다. 소임이나 직책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직책이 주지 곧 방장이다. 방장의 법력 여하에 따라 깨달은 부처가 탄생하기도 하고 망명구리가 탄생하기도 한다.

방장은 수행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특히 안거 동안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데, 독참(獨參, 독대)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이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곧 방장화상에게는 화두가 된다. 깨달은 이가 나타나야만 붓다의 해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직함명이 왜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일까? 당시까지만 해도 방장을 직함으로만 알고 있었지, 주지가 거처하는 '당우'라는 것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다. 사실이 글을 쓰게 된 것도 방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중국 선종사원의 방장실은 커야 대부분 50평~70평 정도로 정(正)위치가 아닌 한쪽에 비껴 있으나, 송대 선종사원의 방장은 컸고 또 방장채 앞에 '전방장(前方丈)'이라고 하여 별도로 방장실이 있었다. 예컨대 목조선의 탄생지 천동사는 약 천여 명이 상이 생활했는데, 법당과 방장 사이에 전방장으로서 대광명전과 천광당(天光堂) 두 당우가 있었고, 영은사는 아예 '전방장'이라고 편액을 붙인 당우가 법당



쌍계사 동방장과 서방장 현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밀납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접합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궁예양초



- | | | |
|----------------------------|-------------------------------------|----------------------------|
| ① 밀납 아랑 연꽃 양초 7.0 f x 33cm |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 f x 18cm | ③ 약속 1호 그림 양초 5.9 f x 18cm |
| ④ 약속 아랑 연꽃 양초 7.0 f x 33cm | ⑤ 밀납 PC 양초 5.5 f x 4cm (연소시간 약 8시간) |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 f x 18cm |

한복밀납양초



- | | | |
|----------------------------|----------------------------|----------------------------|
| ① 밀납초 90cm x 90cm | ② 밀납초 연봉 연가동 7.0 f x 34cm | ③ 밀납초 돈타래 5.6 f x 27cm |
| ④ 밀납초 3호 4.7 f x 25cm | ⑤ 밀납초 1호 5.9 f x 18cm | ⑥ 밀납초 2호 5.9 f x 14cm |
| ⑦ 밀납초 3호 4.7 f x 13cm | ⑧ 밀납초 4호 4.7 f x 10cm |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x 10cm |
|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f x 13cm |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 f x 14cm |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 f x 10cm |
| ⑬ 밀납초 밀대 전사재반야심경 (연화) |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재반야심경 (연화) | ⑮ 밀납초 연봉 한가람 전사재반야심경 (연화) |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